

# 우리 동네 미세먼지 눈으로 본다

### 익산시 공기알라미 신호등 설치... 대기오염정도 색깔로 정보 제공

익산시가 대기질 정보를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대기오염정도를 색깔로 확인할 수 있는 공기알라미 신호등을 시청 정문 옆 도로변에 시범 설치했다.

시에 따르면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대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대기질 농도에 대한 정보제공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현재 익산시 대기오염물질 측정 3개소의 데이터는 전자랜드사거리 대

기오염전광판과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등 컴퓨터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어 시는 컴퓨터 활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대기질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기 위해 이번 공기알라미 신호등을 설치하게 됐다.

공기알라미 신호등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대기오염측정소의 대기질 농도를 전송받아 표출한다.

이번에 설치한 공기알라미 신호등

은 익산시청 옥상에 설치한 남중동 대기오염측정소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미세먼지, 오존의 대기질 농도를 좋음(파랑), 보통(녹색), 나쁨(노랑색), 매우나쁨(적색)으로 표정과 함께 나타내 색깔로 대기오염정도를 한눈에 알 수 있다.

시는 시범 설치한 공기알라미 신호등이 시민들의 호응이 좋을 경우 시민들이 가까운 측정소의 대기질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내년에는 지

역별 유통인구가 많은 곳에 10개의 미세먼지 신호등을 점차적으로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익산시 김용호 녹색환경과장은 "지역 대기질 농도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해 시민의 알 권리 욕구를 충족시키고 미세먼지 농도를 쉽게 확인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마스크 착용이나 외출 자제 등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 위기청소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나눔스토리' 프로그램 마련  
8월 한달간 4회 걸쳐 진행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성장네트워크, 나눔Story'라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관내 청소년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친구사귀기 프로그램'과 '올틴품성개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생활시설의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친구관계와 이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청소년기에 함양해야 할 품성 덕목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여름방학을 맞아 8월 한 달간 4회기 집단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군산=장현기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구세군 군산 후생원과 일맥원의 관계자는 "일반 청소년에게 일괄적으로 진행됐던 프로그램과는 달리 청소년생활시설의 욕구와 특성을 파악해 시설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다"고 전하며 만족감을 표현했다.

김진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은 "앞으로 지역사회 청소년기관 및 시설과 협력해 위기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에 힘써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순규 가족청소년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청소년 기관과의 협력적 관계가 형성됐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청소년이 지역 내에서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이곳은 수상레저 금지구역입니다"

### 군산해경, 새만금 내측 일부 지정... 활동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군산해양경찰서는 새만금 내측 일부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레저 활동 도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새만금 방조제 일부 수면에 대해 수상레저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이곳은 군산 옥서면 선연리 미곡군 활주로 끝단 전면 해상으로 공항 활주와 인접해 전투기나 민간항공기와 충돌 및 제트기류로 인한 사고 발생 등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 등 동력

레저기구는 물론 레저 활동에 이용되는 카약, 카누, 카이트를 포함한 모든 레저기구 활동이 금지된다.

최근 새만금 내측 수역(水域)은 새만금 물막이 공사 이후 파도와 조류의 영향이 없어 최적의 수상레저 활동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패러글라이딩을 타며 시속 40km로 날아오른 뒤 해상으로 떨어져 서핑을 즐기는 카이트 서핑(Kitesurfing)과 레저보트에 사람이 탄 대형 연(鸞)을 매달아 하늘 높이 띄우는 파라세일(parasail) 활동도 크게 늘었다.

더불어 농업생명용지로 개발 중인

새만금 3공구에서 현장 작업선박과의 레저보트 충돌사고 개연성이 높아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과 법제처 업무 질의 등을 거쳐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채광철 서장은 "연말까지 계도와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만금 내측 하재 선착장 등 2개소에 공고판을 설치하고 각 기관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을 알릴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군산=장현기자

익산시, 뉴딜일자리 참여자  
자격증 필기시험 합격 결실

2017년 익산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가자들이 취업에 이어 관련 자격증 1차 시험을 통과하는 결실을 맺고 있다.

익산시 종합민원과는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자 3명중 2명이 2017절기 기능사 4회 '지적기능사' 필기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익산형 뉴딜일자리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4~9월까지 6개월간 운영되고 있다. 참여자들은 뉴딜일자리 사업을 통해 키운 직무·작업능력을 바탕으로 이번 지적기능사 필기시험에 도전하게 됐다. 이들은 앞으로 실기시험을 거쳐 최종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면 LX공사·지적측량업체 등 기업에 취업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서익산농협이 농업인 조합원들에게 겨울철 김장을 할 수 있도록 배추종묘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 도시의 흉물 노후간판 군산시 정비사업 박차

군산시는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흉물스럽고 위험하게 방치되어 있는 주인 없이 방치된 노후간판과 위험간판에 대해 철거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지난 4월부터 추진한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을 통해 점포의 폐업이나 이전 등을 이유로 간판을 철거해야 하나 그대로 방치되어 위험요소가 있는 장기간 방치된 노후 및 위험간판을 대상으로 시가 직접 나서 정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3~5월에 1차 사업으로 철거신청 30여건을 접수해 무연고 노후 위험간판을 철거했으며, 이번에 추진하는 2차 사업은 홈페이지 공고 및 읍면동 주민센터 홍보를 통해 오는 30일까지 무연고 노후간판



군산시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시민안전을 위해 주인없이 방치된 노후·위험간판을 철거하고 있다.

등에 대한 철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 위험간판이 산재해 있는 원도심 일원(월명동, 해신동, 중앙동, 삼학동, 흥남동, 신풍동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추진되며, 간판 철거는 사고 위험이 높은 노후화 된 간판을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10월 말까지 철거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군산=김필곤 기자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한 1,305필지에 대해 군산시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 받는다.

시에서는 자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위해 시청 토지정보과(454-3992~5)나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자가열람부'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ice.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열람기간 중 표준지 선정, 인근 토지와 지가균형 등 개별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적정한 의견 가격을 제출받아 현지조사와 실시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절차를 거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장현기자

## 김장용 배추종묘 무상공급 '큰 호응'

서익산농협, 조합원에  
약 3200 포트판 지원

서익산농협이 농업인 조합원들에게 겨울철 김장을 할 수 있도록 배추종묘를 무상으로 공급했다.

임철석 조합장은 서익산농협 임직원들과 함께 약 3,200포트판(1포트판에 배추 105포기)의 배추를 열심히 가꾸어 관내 1,500여 농가에 김장배추 종묘(가구당 200포기)를 공급해 농민조합원들이 겨울철 김장배추 파종하는 수고를

덜어 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영농회장 김진중(63)씨는 "매년 조합원들을 위해 가구당 200포기씩 공급해주는 배추종묘에 대해 참 고맙고, 비가 많이와 흐린 날씨에도 잘 키워준 조합에 항상 감사하고 꾸준한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철석 조합장은 "앞으로 조합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농가실익 사업을 계속 발굴 실천하여 꼭 필요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응급 구호품 세트**

홈페이지 [www.redcross.or.kr](http://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